

2023년 07월 1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65편 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42(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30장 1~15절(구약p.788)

1.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돌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2.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3.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4.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뭇을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5.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 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6.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7.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8.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9.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11.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12.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뺨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13.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14.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15.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 같이 날려 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 말씀선포 / 의인의 고난

세상에서는 의인이 악인에게 박해를 받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랬고, 예수님의 고난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를 보듯,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과 오히려 복이 임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오직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24-30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데도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또 다른 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뒤에 우리에게 갚으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역전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욥이 말하는 고난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1. 악인들에게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욥을 두려워했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인격과 능력과 배려에 압도되어 감히 욥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 태도도 취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재앙을 당해 모든 소유를 잃었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자 그들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의 자식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탄식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지금 욥이 고백하는 내용은 욥이 그 사람들의 신분을 비하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재앙이 임하기 전과 후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욥의 도움과 보호를 받았던 자들이며 분명합니다. 욥에게서 먹을 것을 얻었고, 삶을 영위할 모든 것들을 얻었던 자들이며, 욥에게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던 자들이 욥이 재앙을 만나 힘을 잃게 되자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영하던 그들이 얼마 후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욥은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진술합니다. 본문 9~10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예수님도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했습니다(막14:65). 욥도, 예수님도 분명한 사실은 죄 때문에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마20:19). 악인들에 의해 의인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잠시 잠깐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을 흔들고 악한 길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이유 없이 고난을 받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내야 합니다. 비록 선한 싸움을 하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 또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더욱 힘을 내어 세상의 고난의 풍랑을 이겨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심지어 고난까지도,

2.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 욥은 악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모습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발에 밧을 놓고 길을 에워싸며 재앙을 재촉한다고 한탄합니다. 마치 전쟁 중에 성을 무너뜨리고 달려드는 적군과 같이 그들이 사납고 무섭게 자신에게 달려든다고 진술합니다. 본문 12~15절입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밧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 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 같이 날려 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여 자존감이 무너지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음을 진술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곤고 하게 하셨기에 대적들이 마음껏 자신을 조롱하고 공격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그 날밤 당신의 길을 막으려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잡히시는 것이 옳다고 하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마26:53-54).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므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의 손에 멸망하게 내버려 두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잠잠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쓴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에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욥도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말고 오히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눈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을 증거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값으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당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의인이 궁극적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알아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악인의 공격과 박해를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59(통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 폐 회 / 주기도문